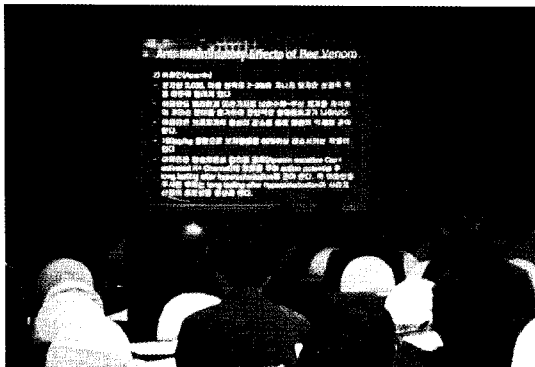


# 봉독요법! 염증질환 및 자가면역 질환에 효과 좋아

- 황진원 박사 양봉학회 특별 강연서 주장



봉독(아피톡신) 요법이 급성 및 만성 염증 질환(관절염, 신경염, 근육염, 활액낭염 등)과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등)에 치료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원(안아픈세상 의원) 박사는 지난 1월 6일 한국양봉학회(학회장: 최광렬) 학술발표회에서 ‘봉독요법의 임상적용’이란 특별 강연을 통해 아피톡신(봉독)의 효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황 박사는 “봉독요법은 역사적으로도 수천년 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발표된 봉독 관련 의학논문이 4천여 편이 넘는 등 그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봉독의 효능은 1. 면역계 작용 2. 항염증 작용 3. 신경독 효과 등으로 봉독은 면역계를 자극시켜 생체의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항염증 작용으로 각종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황 박사는 봉독에는 항세균, 항진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으며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등 방사선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결과 입증됐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봉독은 다른 화학적 약품에 비해 중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경미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며 “빈도순으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가려움증, 부어오름, 일시적 두통, 일시적 현기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봉독요법 실시전에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봉독의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주의 깊게 시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봉**